투어 번호
LKD7NWA2QZ

해안과 언덕 (8일)

8일 · 7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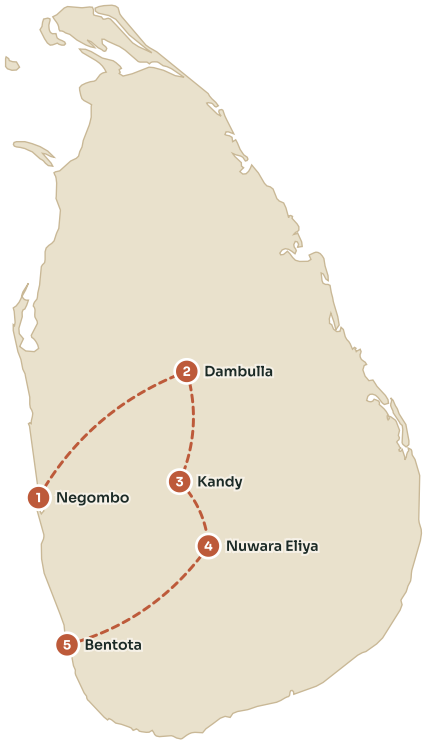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8일간의 투어는 서쪽 해안의 네고롬보에서 출발하여 문화 삼각지대를 거쳐 캔디로 가고, 누와라엘리야 주변의 차 재배지로 올라간 후, 남서쪽 해안의 벤토타와 갈레로 내려가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전 일정에 걸쳐 개인 에어컨 완비 차량과 운전 가이드로 여행합니다.

하이라이트로는 담불라의 동굴 사찰, 시기리야의 암석 요새, 히리와두나 마을 체험(황소 카트 탈기 및 카타마란 사파리 포함), 마탈레 근처의 향신료 정원 방문, 캔디의 치아 사원과 캔디 문화 공연, 누와라엘리야 근처의 차 공장 투어, 코스고다 거북이 부화장, 갈레 요새 산책, 마두 강의 보트 사파리 등이 있습니다.

일정은 역사, 문화, 야생동물, 해안 휴식을 섞어서 진행되며, 저지대의 더위에서 시원한 언덕 지역으로, 다시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매일의 관광은 다음 숙소까지의 이동에 맞춰 정렬되며, 호텔에서 휴식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이 포함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면 전담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네곰보로 모셔다 드립니다. 체크인 후 휴식을 취하시고, 저녁에는 시내 투어가 이어집니다.



네곰보 시내 투어

네곰보는 서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모래 해변과 수백 년 전통의 어업으로 유명합니다. 방문객들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산호초 사이에서 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해안 바로 앞에는 50년 된 난파선이 가라앉아 있어 다양한 어종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네곰보 → 피나왈라 → 담불라

네곰보에서 체크아웃한 후 담불라로 이동하여 체크인하고, 저녁에는 석굴 사원을 방문합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담불라의 황금 사원은 기원전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사원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함께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동굴들에는 신성한 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 그리고 새로운 대수도원 등이 포함됩니다. 석굴 사원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3 담불라 → 시기리야 → 민네리야 → 담불라

오늘은 시기리야 바위 요새와 히리와두나 마을 체험에 하루를 할애합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기원후 5세기에 지어진 이 바위 요새는 카샤파 왕의 왕궁이 있던 곳으로, 사자의 발 모양으로 조각된 계단을 통해 들어가는데, 이 때문에 '사자 바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르는 길에는 잘 보존된 벽화,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왕궁으로 이어졌던 터널들을 볼 수 있습니다.

Wrobell · CC BY-SA 3.0

히리와두나 마을 투어

히리와두나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로, 소달구지 타기,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르는 카타마란 사파리, 논길 산책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투어에는 전통 요리 시연과 연잎에 차려진 가정식 점심이 포함됩니다.

Day 4 담불라 → 캔디

마탈레를 경유하여 캔디로 이동하며, 향신료 정원을 방문한 후 숙소에 여장을 풀고 저녁에는 전통 문화 공연을 관람합니다.



마탈레 향신료 정원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인근에서는 가이드를 따라 향신료 및 허브 정원을 둘러보며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 다양한 향신료와 허브, 그리고 이들의 전통적인 용도와 아유르베다와의 연관성을 알아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안 전통 문화 공연

저녁에는 보석 세공, 목공예, 바틱 염색 등 지역 전통 공예와 관련된 투어가 이어지며, 이후 화려한 전통 무용과 불 춤, 검 춤, 북소리가 어우러진 캔디안 전통 문화 공연을 감상합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5 캔디 → 누와라엘리야

불치사를 방문한 후 람보다 폭포와 차 공장을 거쳐 누와라엘리야로 향하며, 도착 후에는 시내 투어가 이어집니다.



불치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사원은 16세기에 부처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빨강, 크림, 검정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법당과 조각된 기둥, 황금 불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A.Savin · FAL



람보다 폭포

누와라엘리야로 가는 길에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인 람보다 폭포에 들러 잠시 쉬어갑니다.

A.Savin · FAL

차 공장 방문

차 농원과 공장을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실론 차의 다양한 품종과 가공 방법, 품질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차 산업은 1824년 페라데니야에서 처음 차나무가 심어진 데서 시작되어, 이후 1852년부터 제임스 테일러가 룰레콘데라 농원에서 상업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누와라엘리야 시내 투어

해발 약 6,200피트의 차 재배 지역 중심에 자리한 누와라엘리야는 영국인들에 의해 잉글랜드 전원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조지안 양식과 퀸 앤 양식의 주택들, 영국 성공회 교회, 골프장, 잘 가꾸어진 공원들이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6 누와라엘리야 → 벤토타

체크아웃 후 남서부 해안의 벤토타로 내려가며, 가는 길에 거북이 부화장에 들릅니다.



코스고다 거북이 부화장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 부화장은 스리랑카 해안을 찾아 알을 낳는 멸종 위기 바다거북 5종의 둥지를 보호하여 새끼 거북이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아기 거북이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부상당해 보호받고 있는 성체 거북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7 벤토타 → 갈레 → 벤토타

당일 일정으로 갈레 요새와 마두강 보트 사파리를 둘러본 후 벤토타로 돌아옵니다.



갈레 요새

한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갈레 요새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로, 박물관과 등대, 그리고 네덜란드식 이름이 붙은 돌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마두강 보트 사파리

발라피티야에서는 맹그로브가 늘어선 마두강 수로를 따라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햇볕을 쬐는 악어와 물왕도마뱀, 계피를 재배하는 작은 섬을 지나고, 물고기 마사지 체험과 조류 관찰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SUPindia · CC BY-SA 4.0

Day 8 벤토타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

조식 후 체크아웃하고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
